

# 홍건희 고향 복귀...KIA 불펜 이끈다



### 두산서 6년 만에 돌아와 친구들과 의기투합 부상 관리하며 시즌 준비...경험·힘에 기대감

고향으로 돌아온 홍건희가 친구들과 빛나는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월 스프링캠프 출발을 앞두고 우완 홍건희와 연봉 6억 5000만원, 인센티브 5000만원 등 총액 7억원에 1년 계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6월 류지혁과의 트레이드로 두산으로 떠났던 홍건희는 베테랑이 돼 고향 팀에 복귀하게 됐다. 홍건희에게는 어색하면서 익숙한 캠프다. 지난 6년 두산에서 뛰는 동안 선수도,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어느새 고참이 돼 후배들도 많아졌다. 요즘 시대에 맞게 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이 어색하지만 KIA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던 만큼 익숙한 팀이다. 함께 성장했던 친구들과 동료들도 있다. 홍건희는 "준영이, 호령이 있고 현종이 형도 아직 있다. 상현이, 기훈이 같이 했던 후배도 있어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준영과 김호령은 '92 친구'다. 팀을 떠날 때와 달리 팀에서의 위치와 나이가 많이 달라졌다. 팀의 확고한 좌완스페셜로 활약하고 있는 이준영은 올 시즌을 앞두고 KIA와 FA 계약을 맺었다. 김호령도 지난 시즌 반전의 타격을 선보이면서 주전 중견수로 자리를 확고히 했다. 올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도 얻는다. 든든한 친구들과 다시 의기투합한 홍건희는 "지난 시즌 호령이도 활약했고, 준영이도 더 성장해서

잘하고 있다. 친구들과 마음 더 가는데 셋이서 잘해보겠다"고 동반 활약을 예고했다. 목표하는 시즌을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 관리'다. 홍건희는 지난 시즌 팔꿈치 부상으로 20경기에서 16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홍건희는 "부상이 없던 스타일인데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더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트레이닝 파트에서 잘 관리해 주신다"며 "캠프 건강하게 마치고 시즌에 맞춰 페이스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시즌 준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KIA는 두산에서 마무리로도 활약했던 홍건희의 힘과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야수진의 줄부상 속 뒷심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KIA는 홍건희의 가세로 긴 호흡으로 효율적으로 불펜을 꾸려갈 수 있게 됐다. 마운드에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베테랑으로서의 경험과 다른 팀에서 얻은 노하우 전수도 '젊은 마운드' KIA가 기대하는 홍건희의 역할이다. 홍건희는 "후배들이 다들 착하다. 더 친해지며 더 많은 이야기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팀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몸 잘 만들어서 보여드리겠다"며 "6년을 뛰고 다시 돌아왔는데 감회가 새롭다. 팬 분들께서 반겨주셔서 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그래도 부담감보다는 설레는 느낌으로 시즌 잘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와 1년 계약을 맺고 친정팀에 복귀한 홍건희가 불펜 새 전력으로 중심을 잡는다. 홍건희가 아미미오시마 1차 캠프에서 양현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AI페퍼스가 지난 15일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IBK기업은행과의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1 승리를 거두며 시즌 12승째를 기록, 구단 최다승 기록을 세웠다. <KOVO 제공>

## 페퍼스, 벼랑 끝 승부로 '봄배구 꿈' 살린다

### 오늘 화성서 기업은행과 V리그 6라운드 첫 경기 승점 3점 반드시 필요...3-0이나 3-1로 승리해야



창단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봄배구 진출 불씨를 살릴 '운명의 승부'를 치른다. 페퍼스는 25일 오후 7시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과 2025-2026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첫 경기에 나선다. 올 시즌 열세(1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대지만 최근 분위기는 페퍼스에 기울다. 페퍼스는 지난 15일 열린 5라운드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1 승리를 거두며 당시 구단 최다승인 시

즌 12승을 기록했다. 이 경기에서 페퍼스는 1세트를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조이와 시마무라를 중심으로 공격이 살아나며 2-3세트를 연달아 따냈고, 4세트 접전 끝에 조이의 서브에이스로 승리를 완성했다. 이날 기업은행의 '주포' 칸켈라가 2세트 블로킹 과정에서 발목 부상을 입어 전력에서 이탈했다. 앞서 리베로 임명옥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는 등 기업은행은 공수 전력 공백이 있다. 반면 고예림의 부상 복귀 등으로 선수층이 탄탄해진 페퍼스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정관장전에서 조이가 개인 한 경기 최다 40득점을 기록하며 연승을 이었다. 또 박은서, 하혜진, 시마무라 등 선수들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팀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이번 맞대결은 페퍼스

에게 순위 격차를 좁힐 중요한 기회다. 현재 페퍼스는 승점 38점(13승 17패)으로 리그 6위에 올라 있으며 5위 IBK기업은행(44점)과 6점, 4위 GS칼텍스(45점)와는 7점 차로 뒤져 있다. 무엇보다 봄배구가 걸린 '벼랑 끝 승부'다. 페퍼스가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더하지 못하면 봄배구 가능성은 사라진다. 포스트시즌 진출 마지노선인 4위권 진입 또는 준플레이오프 성립 조건(3위와 4위 간 승점 차 3점 이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번 맞대결에서 세트스코어 3-0 또는 3-1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럴 경우 승점 3점을 얻으면서 IBK기업은행과의 격차를 3점으로 좁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3-2로 승리를 한다면 승점 2점에 그쳐, 봄배구는 무산된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탈꼴찌'를 확정하며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페퍼스가 봄배구 진출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을 이어간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 남·녀 배구, 아시안게임 전초전 출격

### 선수권 12개 출전국 확정

오는 9월 개막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으로 치러지는 2026 아시아배구연맹(AVC) 남·녀 아시아선수권대회에 나설 12개 출전국이 확정됐다. 24일 AVC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선수권 개최국과 지난 대회 챔피언, 작년 AVC 네이션스컵 우승팀, 권역별(동부, 중부, 서부, 남부, 오세아니아) 우승팀 5개국,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랭킹(올해 1월 기준)에 따른 4개국을 합쳐 12개국이 출전권을 얻었다.



아시아에 라미레스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은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에 참가해 개최국 일본을 비롯해 중국, 이란, 카타르 등과 우승을 다툰 전망이다. 이들 4개국 외에 호주, 바레인, 인도, 뉴질랜드, 오만, 카타르, 대만, 태국도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중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선수권에선 결승에서 대만을 3-0으로 꺾고 우승했지만, AVC 네이션스컵에선 결승 진출에 실패한 뒤 3-4위전 패배로 4위에 그쳤다. 또 11년 만에 출전했던 세계선수권에서도 프랑스, 아르헨티나, 핀란드의 벽에 막혀 3전 전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세계랭킹 26위에 머물러 있다. AVC 국가 중에선 일본(7위)과 이란(16위), 카타르(21위)보다 낮고, 중국(28위)보다는 높다. 남자 대표팀은 아시아선수권에 내년 세계선수권 출전권(4장)이 걸려 있는 데다 이 대회 우승

팀에 2028년 LA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승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다. 차상현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 대표팀은 오는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되는 여자 아시아선수권에서 개최국 중국을 비롯해 일본, 태국, 호주, 홍콩,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레바논, 대만, 베트남과 경쟁한다. 여자 대표팀은 작년 페르난도 모랄레스 전 감독의 지휘 아래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 출전했지만, 1승 11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전체 18개 참가국 중 최하위로 밀리면서 VNL 잔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모랄레스 전 감독은 계약 연장을 하지 못했고, 대한배구협회는 여자 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차상현 감독을 선임했다. /연합뉴스

## 한국, 아시아 LPGA 강제 잇는다

### 월드챔피언십 싱가포르서 26일 개막...김효주 등 12명 출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이 26일부터 나흘간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파72·6793야드)에서 열린다. 지난주 태국 춘부리에서 열린 혼다 LPGA 타일랜드(총상금 180만달러)에 이어 2주 연속 아시아권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김효주, 김세영, 유해란, 최혜진, 김아람, 고진영, 이소미, 임진희, 황유민, 이미향, 신지은, 윤이나 한국 선수 12명이 출전한다. 2008년 창설된 이 대회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차례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7번 우승했고,

남은 한 번도 교포 선수인 미셸 위(미국)가 정상에 올랐다. 박인비와 고진영이 두 번씩 우승했고, 장하나와 박성현, 김효주도 이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효주가 2021년 이 대회를 제패했으며 이후 고진영이 2022년과 2023년 2연패를 달성했다. 김효주는 지난주 혼다 타일랜드에서 단독 3위에 올라 이 대회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기대다. 지난해 4월 세브론 챔피언십 이후 '톱10' 성적이 없는 고진영은 이번 대회에서 반등을 노린다. /연합뉴스